

국내 생녹용가 1/10수준, 양육산업 전체 붕괴 위험

지난 5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뉴 경제 공동위를 비롯,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의 내한(5월13일-16일)으로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은 발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품질검사 방법, 개방시기, 수입물량만이 우리 정부와의 협상과제로 남아 있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지난 5월25일 뉴질랜드 대사관을 방문,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수입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으며 이를 저지키위해 결사 투쟁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뉴측에서는 이러한 본회의 입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지난 6월20일 절편녹용 수입에 관한 뉴측의 입장자료를 본회에 보내왔다. 결론적으로 절편녹용 수입을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즉각 재 반박자료를 발송함으로써 절편녹용 수입 반대에 관한 입장을 재 확인시키는 동시에 8월 하순경 대규모 범 양육인 궐기대회를 추진키로 확정되었다.

◇ 뉴 절편녹용이 내포한 위험성

이처럼 국내 양육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로는 뉴질랜드 절편녹용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위험성 때문이다.

녹용가격이 국산의 1/10에 불과한 뉴질랜드 녹용이 절편의 가공까지 거쳐 국내에 수입될 경우 가격경쟁은 한층 더 어려워진다. 고기생산이 주목적이며 녹용은 부수적인 수입원인 뉴측과 달리 녹용생산을 주목적으로 사육을 실시하는



국내 양륙업자들은 가격측면에서 도저히 그들 수준에 맞추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낮은 가격으로 인해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상품가치의 하락도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이와함께 절편 과정을 거친 녹용이 반입될 경우 순록뿔이 섞여도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는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

뉴측에서는 DNA 검사를 통해 색출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또한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뉴측 절편녹용을 제 3국에서 수입, 순록뿔을 혼합할 개연성도 높아 국내 녹용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뉴측의 절편녹용이 개방될 경우 중국, 캐나다, 미국, 러시아 등 녹용

수출 국가의 절편녹용 수입 요구가 예상되며 이들 요구를 거부할 명분 또한 없다. 이에 국내로 반입되는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국내 녹용 시장은 외산으로 잠식되고 국내 녹용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국산둔갑 판매, 용도의 불법 유통이 판을쳐 녹용 및 사슴 가격의 하락도 예상돼 뉴질랜드 절편녹용 개방은 한마디로 국내 양륙산업 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 생산자 배제된 협상 진행

이러한 위험성과 함께 국내 양륙업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양륙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생산자들과는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정부가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양륙산업의 실정을 가장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생산자가 배제된 정부간 협상은 국내 양륙업의 피해를 수반해야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에 양륙농가를 대표하는 본회는 그 동안 양륙농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 협상은 인정치 않기로 하고 앞으로 진행될 협상 또한 국내 양륙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사안으로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수입 입력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양륙**